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미국 AI 실적 모멘텀 지속. 미국 및 한국, 대만 실적모멘텀 글로벌 최상위권 지속. 미국 커뮤니케이션(통신장비 등), IT, 에너지(원유) 실적 상향 주도 중. 지난주 실적 서프라이즈 기업 위주가 주도했지만 그 밖에 엔비디아, 알파벳,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등 실적 전망치도 급증

Cisco: 5/13 장 마감 후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Q3 FY2026 매출 역대 최고 $158억(YoY +12%), Non-GAAP EPS $1.06(컨센 $1.04 상회). AI 인프라 수주 $21억(누적 $53억). FY2026 AI 인프라 매출 가이던스 $90억으로 대폭 상향(전년 대비 4배 이상). Q4 가이던스 매출 $167~169억으로 컨센서스 상회. 하이퍼스케일러 대상 Silicon One 포트폴리오·광 트랜시버·AI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장비 수주가 폭발적으로 증가. 동시에 자원 재배치를 위한 구조조정(4,000명 감축) 발표. 발표 후 주가 +18% 급등

Alibaba: 5/13 장 전 발표, 매출·EPS 미스, 클라우드는 서프라이즈

Q4 FY2026 총 매출 $350억(YoY +11% 실질 성장, 공식 발표 +3%, 대규모 AI 투자 반영 회계 처리).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 매출 YoY +40%, AI 관련 매출 11분기 연속 세 자리 성장. 순이익 사실상 제로(AI 및 퀵커머스 투자 집중). CEO Eddie Wu: "AI 매출이 12개월 내 클라우드 사업의 50% 초과 전망." 주가는 장중 -3% 후 +7~8% 급반등

Applied Materials: 5/14 장 마감 후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Q2 FY2026 매출 $79.1억(YoY +11.4%, 컨센 $78.2억 상회), GAAP EPS $3.51(YoY +33.5%, 컨센 $2.71 대폭 상회). Non-GAAP EPS $2.86(컨센 $2.68 +6.7% 서프라이즈). 회사 측 FY2026 반도체 장비 사업 YoY +20% 이상 성장 전망 유지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통신장비/네트워킹**(Cisco AI 인프라 서프라이즈 → 구조적 수혜 확인), **반도체 장비**(AMAT 실적 서프라이즈, 반도체 사이클 가속), **원유/에너지**(호르무즈 재긴장, WTI 주간 +11%), **화학**(공급 타이트닝 지속), **방산**(이란 전쟁 재고조 우려)

하향 업종은 **유틸리티/리츠**(국채 금리 급등 → 할인율 상승), **소비재**(인플레 가속 → 실질 구매력 하락), **항공**(유가 급등 연료비 부담), **바이오/제약 일부**(국채 금리 상승으로 성장주 밸류에이션 압박)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혼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시스코, 보잉, 마이크론, 필립스66, 지멘스에너지, 마라톤페트롤리엄, 미쓰비시중공업, 존슨컨트롤즈인터네이션, AMD,

캐터필라, 알파벳,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람코, 일라이릴리, 팔란티어, 머크, 찰스슈왑, 버티브홀딩스

하향 주요 종목은 뉴몬트, 쉘, 사이먼프로퍼티, 닌텐도, 길리어드사이언스, 소프트뱅크, 코인베이스, 스트래티지, 텐센트, 셰브론, 알리바바, 도요타, 루이비통, 퀄컴, 토탈에너지스, 유니온퍼시픽, 블랙스톤, 화이자, 히타치, 프롤로지스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2Q26F OP는 210조원 (1W +2.4%, 1M +15.0%, QoQ +45%). **2026E OP**는 888조원 (1W +1.4%, 1M +20.3%, YoY +195%),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 연간 실적 모멘텀 확대. **2Q26F OP 상향 업종**은 2차전지, 화학, 정유, 반도체, 증권, 해운, 게임. **하향 업종**은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방송엔터, 호텔레저, 택시, 기계, 제약바이오, 섬유의복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2Q26F OP)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HD현대중공업, 미래에셋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LG전자, 고려아연, LG화학 상향. 삼성물산, 한국전력, 알테오젠, 한화시스템,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에피스홀딩스, LG디스플레이, 주성엔지니어링 하향

2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S-Oil, 미래에셋증권, 한화솔루션, GS, 포스코퓨처엠, 엘앤에프, OCI홀딩스, 한전기술,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금호석유화학, NC, SK하이닉스,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지주, HMM, 롯데쇼핑, 대덕전자, 심텍, 하나마이크론, 삼성증권, 신세계, 두산테스나, LG이노텍, 대우건설, LG생활건강, 삼성전자, HD현대중공업, 크래프톤, 한화, 효성중공업, 한화생명, 한화오션, 두산, 고려아연, 에이피알, HD건설기계, 삼성전기, NH투자증권, LG, DB하이텍, 두산밥캣,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비전, 삼성생명, SK바이오팜, 유한양행, LG전자,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한화엔진, F&F, 현대건설, KT

외국인은 매도세 더욱 확대, 중형주와 코스닥만 매수세. 외국인 순매수는 코스피 -19.9조원, 코스닥 +2,900억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통신, 디스플레이, 2차전지, 철강, 건자재. **순매도 상위 업종**은 건설, 자동차, 반도체, 가전, 증권

연기금은 매도 확대, 대형주 및 중형주, 성장주 매도세 집중. 연기금 순매수는 코스피 -1조원, 코스닥 -720억원.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내구소비재, 유통, 보험, 가전. **순매도 상위 업종**은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건자재, 전기장비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5.18일(월)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계획 발표 여부 주목 / 바이두(BIDU)

19일(화)

미국 4월 주택착공·건축허가 (오후 9:30 ET) / 홈디포(HD), 톨브라더스(TOL), 카바그룹

(CAVA)

20일(수) ★ 금주 최대 관심

FOMC 5월 회의록 발표, 파월 시대 마지막 기록. 역대 최다 반대표(금리 동결)가 나온 회의록으로, 신임 의장 케빈 워시의 첫 과제로 주목 / 엔비디아(NVDA), 장 마감 후(한국 시간 5.21 오전 5:20), 아날로그디바이시즈(ADI), TJX, 로우스(LOW), 인튜이트(INTU)

엔비디아 Q1 FY2027: 컨센서스 매출 $788억(YoY +78%), EPS $1.77. 골드만삭스 $800억 전망. Q2 가이던스 컨센서스 $866억이 실질 관전 포인트, Q2 가이던스가 이를 하회 시 조정 불가피

21(목)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 글로벌 제조업 PMI(예비치) / 월마트(WMT), 디어(DE), 랄프로렌(RL), 로스스토어(ROSS), 월마트: 소비 트렌드 선행 지표, 저가소비 심화 여부 확인

22일(금)

미국 5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확정치), 서비스업 PMI(예비치) / -

Quant Comment

지난주 주말(미 금요일 장 기준), 상위 0.9%에 해당하는 강한 안전선호 관찰, 달러인덱스 +0.5%, 금 -2.6%, SOX -4%, VIX +6.8%

이란 전쟁 리스크 재부각과 미중 정상회담 실망, 고유가 파급효과로 CPI 4% 돌파 전망이 현실화되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추가 후퇴하며 성장주 밸류에이션 전반에 할인율 압박

관건은 높은 기술주 실적 모멘텀, 지난주 시스코의 역대 최고 매출에 이어 이번주 엔비디아 5/20 어닝에 집중, 컨센서스 매출 $788억, 더 중요한 것은 Q2 가이던스가 $866억 컨센서스를 상회하는지 여부

호르무즈 재긴장으로 유가 변동성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의 엔비디아 실적 + FOMC 의사록 + 월마트의 3중 이벤트가 2분기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분기점

한국 반도체에 대한 변동성 요인인 1) 삼성전자 노조 합의 여부, 2) 깜깜이 미중 정상회담 내용(중국은 미국에게 무엇을 얻었을까?), 3) 지난주 SOX 지수 급락 등, '경이로운 실적'보다는 정치적 요인 등이 부각되는 시점